

노대통령 '개헌발의' 철회

'18대 국회서 개헌 처리' 정치권 합의 수용키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 4년 연임제를 폐지로 한 개헌안을 박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대변인 윤승윤 흥보보수석의 발표를 통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해 대론주인 절차를 밟아줬고, 그 속에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이 정도는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정파들이 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나라당이 개헌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정한다고까지 한 만큼 최소한 다음 국회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18대 개헌에 대한 속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며 "대선에서 개헌 부분에 대해 공약하지 않는다면 후보들이 대선을 치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1월 9일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조성됐던 '개헌정책'은 3개 월여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철회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5일 "국민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이 모처럼 국민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선 주자들 역시 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발전研 7월 독립법인 출범

市 독자 설립 운영 관련 조례 입법예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로 각각 분리·운영키로 한 이사회(지난 3월 14일)의 결정에 따라 '광주발전연구원'이 오는 7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광주시는 15일 "논란 끝에 전남도와 통합 운영에서 분리됐던 광주발전연구원의 독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법인의 성격(재단법인)에서 사업내용, 연구원의 운영과 지원근거, 기금, 이사회 구성,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원은 주요 사업은 광주시의

증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역경제 진흥 등 시정에 관련된 국내외 정부·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 배포, 행정기관·정부부처기관·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 용역의 수탁 등이다. 시는 예고 기간(20일)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는 조례제정과 함께 연구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와 총회, 이사회 구성 등을 거친 뒤 6월말까지 원장과 연구진을 갖추기로 했다. 연구진은 기존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진 13명 중 5명 정도로 출범한 후, 앞으로 1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금은 237억원의 총액 가운데 시의 출연액 80억원 가량을 인계받아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연 뒤, 1995년 6월 광주·통합 운영을 시작했으며 12년 만에 다시 각각의 연구원으로 분리·운영되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국제결혼 이혼율 높다

작년 7.16%... 제주도 이어 전국 두번째

높은 이혼률 농촌사회 심각한 문제 대두

전남지역의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제주도 다음으로 높아 농촌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 이혼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5일 대법원이 지난해 국제 결혼·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6천187건으로 전체 이혼 12만5천 937건의 4.9%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2003년 2천784건, 2004년 3천315건, 2005년 4천20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에는 1.6%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대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지난해 전체 이혼 1천833건 중 국제 이혼이 145건으로 7.91%를 차지해 국제 이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은 7.16%

■ 2006년 시·도별 국제 이혼률(단위%)

제주도	7.91	충북	5.69
전남도	7.16	충남	5.52
서울	6.78	전북	5.40
경북	5.72	광주시	2.82

뒤를 이었으며 경북 5.72%, 충북 5.69%, 충남 5.52%, 전북 5.40% 등 농촌 중심 도 단위 지역의 국제 이혼율이 5%를 넘었다. 지난해 전남지역 국제 이혼 279건 중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대다수인 212건을 차지했다.

서울은 2만7천437건의 이혼 중 국제 이혼이 1천859건으로 6.78%를 차지해 제주, 전남 다음으로 높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2003년 2천784건, 2004년 3천315건, 2005년 4천20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에는 1.6%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대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지난해 전체 이혼 1천833건 중 국제 이혼이 145건으로 7.91%를 차지해 국제 이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은 7.16%

차지해 제주, 전남 다음으로 높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이 남자 946명, 여성 913명으로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국제 이혼 행태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1만1천74건의 결혼 중 국제 결혼이 2천512건(22.68%)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이후 시도별 국제 결혼 통계에서 처음으로 국제 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의 20%를 넘어서는 5%의 결혼 중 한 건이 국제결혼인 셨다.

전국적으로 국제 결혼은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농촌지역에서 국제 결혼이 확산되면서 100쌍 중 13쌍까지 크게 늘었고, 배우자의 국적도 96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 97명 담당

강원도 이어 공무원수 가장 많아

전남도의 공무원 대비 인구 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도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 위에 제출한 공약·기초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대비 자치체 인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 해 말 기준 공무원 정원 2만355명에 도내 인구 195만4천828명으로, 공무원 한 사람이 97.6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치체 가운데 공무원 대비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로 공무원 1명이 주민 93.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 대비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공무원 1명이 주민 261.9명을 담당해 최

고와 최저의 편차가 2.8배에 달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93.8명)와 전남(97.6명)에 이어 ▲제주 108.6명(공무원 5천170명/인구 5만1천695명) ▲경북 112.8명(2만4천108명/271만8천298명) ▲전북 118.4명(1만5천893명/188만1천840명) 순이었다.

이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주민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에 이어 ▲대구 229.6명(1만948명/251만3천219명) ▲부산 221.4명(1만6천419명/363만5천389명) ▲광주 220.9명(6천410명/141만5천953명) 등의 순이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 재현

15일 오후 서울 창경궁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3사 임명식에서 3사가 국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단으로 오르고 있다. 3사(三使) 란 조선 국왕이 일본으로 파견했던 정사, 부사, 총사관을 밀하며 이날 정사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맡았다.

/연합뉴스

휘발유값 l 당 1,500원 육박

9주 연속 상승 이달 둘째주 1,499원

휘발유 판매가격이 l 당 1천500원에 육박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는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국내 유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4월9일~13일)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l 당 1천499.93원으로 전주에 비해 17.16원 올랐다.

올해 들어 l 당 1천394원대까지 떨어졌던 휘발유 판매가격은 2월 둘째 주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주 까지 9주 연속 상승, 지난해 9월 둘째 주의 l 당 1천21.22원으로 전주보다 15.88원 뛰어 역시 9주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1천517.35원), 광주(1천488.50원), 울산(1천511.61원), 충남(1천470.49원) 등이 20.36~27.73원 상승, 20원 이상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에 서울(1천527.98원), 인천(1천519.43원), 경기(1천517.59원) 등 나머지 지역도 전주보다 모두 휘발유 판매가격이 상승했다.

실내 등유와 보일러 등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도 l 당 884.13원과 893.63원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 경유는 l 당 1천211.22원으로 전주보다 15.88원 뛰어 역시 9주째 상승했다. /연합뉴스

부동산증개사무소 간판

중개업자 이름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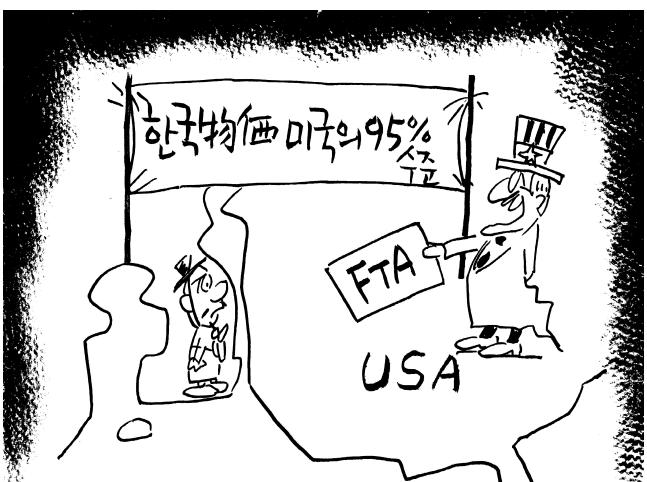
오는 6월 말부터는 부동산증개사무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증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업자가 다수인 법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 /연합뉴스

온·오프라인 광고

- 김종우



점점 더 옆에 붙은 기분

2007년 4월 16일

1. 공사부: 동화 전자증권 농공단지 조성공사

2. 부모의 소재지 및 기수

연번 소재지 기수

1.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9-4 9

2.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1 8

3.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2-3 2

4.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2-4 2

5.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2-8 2

6.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2-9 6

7.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2-19 1

8.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9.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0.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1.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2.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3.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4.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5.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6.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7.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8.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19.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20.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21.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22.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23.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24.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

25. 전성구 동화면 남평리 산 13-15 15